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민수기



대한예수교
총회
장로회

12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민수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총현의 성도들



어느덧 우리는 1998년의 마지막 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결 같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보야도 될 것을 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온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돈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문제 등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바라본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정작 바라보아야 할 대상, 곧 만유의 주재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대답과 살아갈 길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시 62:5).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마 5:8)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 청결해진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 5:26).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심으로 참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12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8년 1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민수기 서문

‘민수기’의 명칭은 인구조사에 근거를 둔 것이다(1:4, 26장). 그러나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다. 즉 시내산에서부터 모압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 방황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민수기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시작하신 것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셨으며, 새로운 세대를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계수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된 삶의 도리를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행진을 위한 군대조직’의 기초로서 인구조사를 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한다(10:11). 이 행진은 다분히 ‘성막’을 중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나 가데스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땅을 탐지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눈은 그들을 낙담시켰고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해 그들을 정제시키신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몰아내어서 불순종의 세대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을 형성하신다. 모압평지에 도착하여 발람의 예언사건, 바알브올 사건, 두 번째 인구조사, 요르단 정착과 땅 분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아론과 미리암까지 죽게 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이스라엘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한다. 민수기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멸하심과 동시에 2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첫번째의 인구조사는 '광야행군을 앞둔' 1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시내산에서 실시했고(14장), 마지막 인구조사는 약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하는' 신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모압평지에서 실시했다(26장). 그러므로 민수기의 첫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마지막 인구조사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이다.

민수기의 내용은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장소의 흐름에 따라 구분해볼 수도 있다. 장소의 흐름에 따른 구분은 내용 흐름에서 볼 것이고,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1-21장은 1차 인구조사에서 광야방황기라고 할 수 있고, 22-25장은 모압평지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발람의 예언과 바알브올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26-36장은 신세대의 인구조사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약 5개월의 준비기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14장 34절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다.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전 10:4).

내용 흐름

- 1:1-10:10 시내산에서 : 1세대의 행군 준비
- 10:11-12:16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 애굽으로 돌아가자(38년)
- 13:1-20:13 가데스 사건 : 가나안 입성 지연
- 20:14-22:1 가데스에서 모압평지까지 : 치르어야 할 전쟁
- 22:2-36:13 모압평지에서 :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신 세대를 위한 준비

“... 그릇 범죄하거든 일년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15:27)

가 나안 입성의 40년 지연과 20세 이상된 자들의 광야에서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14장)에 이어 나오는 본장은 언뜻 보기에는 14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장에 기록된 율법을 실천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앞장과 연결은 자연스럽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1-16절에서는 소제와 전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17-21절에서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22-31절에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으로 가나안 입성이 유보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14:26-35) 이스라엘은 절망과 실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제사와 연관된 규례를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 건너에 펼쳐질 소망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셨으며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곡식을 드리는 법과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속죄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약한 존재임을 지적해 주며 하나님께 대항하여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받아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15:40)

본 문은 부지 중의 범죄와 고의적 범죄의 구분과 그 해결 방안을 다룬 내용(22-31절)의 예시적인 내용으로서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32-34절)를 돌로 처형시킨 사실(35-3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을 이미 십계명 중 제4계명에 제시하였고(출 20:8-11), 그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처럼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이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겨 그 법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제사와 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37-41절에서는 옷단의 술을 달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도의 영적 의미보다 형식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둬으로써 옷술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여 자신들의 경건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형식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와 형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16:7)

민 수기 13장 이후부터 계속 언급해 왔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으며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그곳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14:34). 그런데 성경에는 그 중 38년간의 광야생활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신 2:14). 본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광야 40년 중 마지막 시기, 즉 38년 이후의 마지막 1, 2년 동안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모세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고라 일당의 반란 기도(1-3절), 모세의 책망과 기도(4-15절), 고라 일당이 아론과 더불어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을 삼켜버린 일(16-35절),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제앙을 아론이 속죄하는 장면(41-50절)입니다. 이와같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분수에 맞지 않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봄으로써 처참한 종말을 맛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과 교만이 가져다 주는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것(고전 7:24)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주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깨닫고 낮아지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7:8)

모 세와 아론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시작되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16장).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고라 자손의 반역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본장에 이르러서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1개씩의 지팡이를 마련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족장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속에 두게 하셨는데 이튿날 그 지팡이들 중 오직 아론의 것에서만 살구나무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10-11절).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인한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과 죽은 살구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이적까지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오해하며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12-13절).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 떤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악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증표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 하셨으며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점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따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가 이웃 사랑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18:23)

본 장은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 사건에 연관되어 계속 이어지는 계
 시로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장(17장)의 내용
 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규례(1-7절)와 그
 들의 직무를 위해서 바쳐질 십일조(8-32절)에 관한 내용으로 엮어진 본장
 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 가문을 택하시고 그들의 직분과 생
 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
 에 대해서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의 지위와 생활을 보장하시는 여러 가지 규례를 베푸심으
 로 그들이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레위인
 의 십일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레위인의 생계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일조와 레위인들의 직무(21-27절), 그들이 일반 백성으로부터
 받는 것 중의 십분의 일을 거제로 드리는 레위인의 십일조(28-32절) 등
 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이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동시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바치는 자로 하여
 금 자신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
 지기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말 3:8-10). 그러므로 성도는 십일조뿐
 만 아니라 마음과 몸까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일조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 ▶ 기도 제목 / ①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 (19:7)

정결하게 하는 물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넣어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의식상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이시며 참 제물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부정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시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상적인 제물이 되었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정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넣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붉은 송아지가 속죄제물로서 그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속죄제물의 재가 물과 결합되었을 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얼마나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정화가 필요한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 역시 정결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만지는 자가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려 하라 ...”(20:8)

본 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불평과 반역, 분을 내는 불완전한 모세와 아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불순종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주 앞에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왜 응답해 주셨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짐승들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 오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자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 다시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나는 요즈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40년 전 르비딤 사건과는 달리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혈기를 부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백성을 위해 물을 낸다고 망령된 말을 하였는데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망령된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순간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 (20:16)

이 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를 맞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책임을 만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 대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의식법 아래에서 세운 제사장직이 불완전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청원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냅니까? 그들이 알 때까지 숨기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므로 싸우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그를 존경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잦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천국 갈 준비를 늘 잘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21:9)

하 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호르마에서 승리한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40년 전의 패배를 극복하는 사건이며 가나안 정복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해 죽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낫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쳐다보아야 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백성들이지만 2절에서는 일시적으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백성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가끔 순종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갈망하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벌써 몇 번째 같은 원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11장, 14장, 16장, 20장에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버릇은 없습니까? 만약 이것이 습관적이라면 지금 당장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21:35)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정벌은 약속의 땅에 대한 첫 번째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수고를 통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브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21절 이하에서 에돔과는 달리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쟁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받을 땅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산 왕의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의 땅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 있던 범죄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모리 왕 시혼은 모압을 전멸시킨 강력한 군대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적인 전투를 잘 싸우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22:12)

이 스라엘 백성은 동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동안 막강한 힘을 가진 두 왕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평화롭게 통과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혼 왕은 이것을 거절하였고 이리하여 양측은 야하스 근처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시혼이 대패하였습니다(민 21:21). 바산 왕 옥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도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민 21:35). 이것을 모압 족속이 목격하였고 그들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고대의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술사 발람은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주술로써 백성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신통한 술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찌하든지 저지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를 삼키려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 (22:31)

하 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 왕의 사신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신을 보내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일찍 길을 떠나는 차원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미 그는 명예와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지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켜(벧후 2:15) 조금씩 나귀를 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고 그의 눈을 열어 여호와와 사자의 엄위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지극히 하려는 일은 예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주술적인 기술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며 복을 빌기도 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며 주술적인 힘으로 쉽게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벧전 2:9).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 (23:19)

발람은 자기 고향 메소포타니아의 풍습대로(신 23:4)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의 하나로 여기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찬 발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저지하시고 오히려 그 입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신자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육신의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의 저주를 기대하였는데 오히려 발람의 축복에 당황하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맺어도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지켜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신실한지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 (24:17)

이 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민 23:5,16). 이에 비해 본문의 세 번째 예언에서는 사술을 쓰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장막의 아름다움과 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풍요로울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에 찬 이스라엘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대했던 저주의 내용과는 다르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자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손뼉을 치면서까지 극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발람의 축복의 예언에서는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마굿간 위에 한 별이 빛났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인해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을 얻을 수 있듯이 최악의 어두운 밤을 맞은 이 세상은 영광과 위엄을 지니시고 모든 불의한 세력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참된 빛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빛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5:1)

복 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의 외부 세력에 의한 파괴 공작이 아닌 내분과 타락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킴으로 끝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써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동시에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싯딤에 있는 동안 발람의 꾀(민 31:16)에 의해 그들 중 얼마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난잡한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망의 약속의 땅을 눈 앞에 두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함께 범하는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비느하스의 의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의 울무에 걸린 시기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승리 뒤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 뒤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적인 승리 뒤에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 (26:65)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나온 모든 인원은 육십만일천칠백삼십 명입니다(51절). 이것은 첫 번째 조사 이후 약 30여년이 지난 다음에 실시한 것입니다(1:16). 그러나 가데스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64절).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한 이스라엘의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광에서 죽으리라”(14:28, 29).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를 단호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성취해 가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강박하여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정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27:7)

ㄹ 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기업을 물려 줄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자신들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있게 간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니다. 그녀들의 사연에 대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도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7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헤아리실 정도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빌 2:11). 사실 모든 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율법들이 신약에 가면 오히려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사람을 묶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주님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처리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여호와와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27:17)

하 나님은 이제 한 세대를 이끌고 40여년을 광야에서 지내온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12절).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야속할 것입니다. 40여년 동안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섭섭한 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뛰어 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세는 이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 둔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울 것을 간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17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마 9:36).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그는 40여년 전에 준비된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신에게 감동된 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 둘 중의 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28:2)

오 늘의 본문인 민수기 28장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 제사(1-8절), 인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9,10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드리는 월삭 제사(11-15절)와 절기 제사로서 드리지는 유월절 제사(16-25절), 칠칠절 제사(26-31)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의 평지에서 다시금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을 지도받게 됩니다.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미 시나이산에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이 제사와 규례에 대하여 새롭게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나뭇대로의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규례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롬 12:1).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생활의 중심이 되듯이 우리들 역시 자신을 영원한 산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갈 2:20).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 (29:1)

오 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자리에 모이는 거룩한 모임, 성회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모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동까지 금지해 가시면서 성회로 모일 것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전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노동이 중요하십니까?

이 거룩한 모임의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제물과 제사가 드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거룩한 성회에는 언제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흠없는 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정결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여겨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며 예배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 』(30:2)

사회의 신실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의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공신력이 가장 높았던 사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자신들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권위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서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약한 이후에 그것이 해롭다고 할지라도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2절).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여자의 서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녀의 서원에 관한 규례(3-5절), 유부녀의 서원에 관한 규례(6-8절), 서원에 대한 남편의 책임(13-16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의 서원에 관한 보증은 처녀의 아비들이 져야 하고(5절), 유부녀들의 서원이나 서약은 그 남편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8절). 그러나 처녀나 유부녀와같이 서원에 대해 보증을 설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들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들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딤후 5:5). 여인들이 행한 서약을 만약 아비나 남편이 파약을 하게 되면 그 파약은 유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셨으나(16절), 하나님의 어린 양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레 5:1-6).

하나님 앞에 행한 서약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즐겨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31:7)

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멸망시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망시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게 했던 장본인입니다(25:1-9).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미디안을 진멸토록 명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는 일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선봉에 섰습니다(6절). 제사장으로서 비느하스의 참전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명령대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7절).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사주했던 발람도 죽였습니다(8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다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정하게 하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원수의 화전을 멸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31:31)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멸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짐승과 모든 물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획물을 분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엄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노획한 전리품들은 참전한 군인들에게뿐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그 절반이 분배되었습니다(27절). 사실 군인들만 전쟁에 나갔으나 모든 백성들이 후방에서 그들의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이렇도록 민간인들과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은 배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의 또 다른 절반인 군인들의 몫에서 1/500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28, 29절). 실제로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지극히 적은 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을 위한 몫이 있는데 1/50을 그들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친교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갈 6:6).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전혀 축나지 않았습니다(49절). 이 말은 이 큰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 (1:21)

본 문에 나오는 처녀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처녀는 결코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동정녀를 가리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요셉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모세의 율법(신 22:20-24)을 잘 알고 있던 그로서는 자신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을 듣고 가만히 꿇고자(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19절).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획되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고(삼하 7:12-16),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요셉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폐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설명하십니다(20절).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까지 권면했습니다. 굳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널리 유행하던 이름이었습니다(25절). 그런데 이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요(23절). 그가 또한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찬송 / 109장 본문 / 마 2:1-23

『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2:14)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자신의 통치가 미치는 땅에서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야욕을 위한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1-3절). 헤롯은 유대 땅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분봉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자신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그것도 다윗 왕가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곧 예루살렘에 유아 살해령을 내렸습니다(13절). 요셉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던 주의 사자가 또 다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개굽으로 피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사람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실패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유대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옹하게 하려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15절, 호 11:1). 헤롯은 왕을 죽임으로 자신이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도 분봉왕이 된 지 38년만인 주전 4년에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19절).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줍니다. 헤롯 사후에 또 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일러 주었습니다.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놀라운 구속자를,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왕되신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 (32:15)

본 문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입국의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망각하고 정복될 땅에서만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용감하기로 이름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가족이 심히 많고 또한 이미 정복한 길르앗 땅이 가족 사육에 적합한 땅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땅을 그들의 분깃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의 행위가 38년 전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계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히 분노하여 책망하며,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펼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가나안 정복전쟁에 계속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공동체 내에서 개인주의는 단결을 파괴하고 비신앙적인 사고를 조장하는 적이며, 둘째로 육신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활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 지나친 미련을 가질 때의 위험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 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와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 (33:2)

본 문은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날의 여정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지난날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음은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정리하는 중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기념으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라암셋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진쳤던 모압 평지까지는 일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40여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40여년을 광야에서 유랑한 뒤에야 비로소 그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40여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도록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여정은 거룩한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고의 훈련을 쌓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광야를 걸어갈 믿음을 주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 (33:52)

지 난날의 광야 여정을 회고한 모세는 이제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실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합니다. 즉 본문은 장차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할 것과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할 것(52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나누라는 명령(53, 54절) 및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55, 56절)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선조들이 지내온 10여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출애굽 제2세대로 하여금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념해야 할 사실들을 재차 강조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곧 가증스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룩한 백성이 공존할 수 없으므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의 백성 또한 우상의 백성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에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와 욕심을 내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고 마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 (34:2)

본 문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나눠 가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아라바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 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에난에 이르는 산지, 동쪽으로는 하살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 강을 경계로 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과는 달리 천해의 조건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북으로 약 256km, 동서로 약 80km 정도의 영토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한다면 그들이 차지할 땅은 비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뭇은 때로 몹시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뭇에 자족할 줄 알 때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즉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 이상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의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기업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꼭 필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필요를 알고 필요를 구하는 지혜를 주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35:11)

본 문에는 일반 지파들에 대한 영토 분할 준비가 완료된 후 성막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레위인들의 거주지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거룩한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에서 별도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의 거주지 및 백성들의 십일조 등으로 확보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할당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도피처로 활용됨으로써 레위인들의 삶과 그 터전은 철저히 종교적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백성들의 영적, 정신적 생활을 계도해 갔으며 무고한 자의 생명 보호와 피흘림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등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의 외적인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보신다는 점을 증거해 줍니다. 그밖에도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여러 가지 사실을 시사해 주십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까우나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소서. ② 힘겹게 겨울을 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 우리 형제 슬로브하트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36:2)

본 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슬로브하트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간 사실에 대한 기록과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의 여정에 대한 대 결론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하트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여 므낫세 지파내에서 결혼함으로써 므낫세 지파에 주어진 기업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슬로브하트의 딸들의 순종은 오늘날 무분별한 결혼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젊은 남녀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즉 결혼은 단지 인간의 쾌락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위대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생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민수기가 보여 주는 교훈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불순종할 때 실패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혼생활이 되게 하소서. ② 98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잠 언

잠언에 대하여

잠언은 구약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세 책(욥기, 시편, 잠언) 중 한 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직접 썼을 뿐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잠언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국제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지혜문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잠언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터전을 둔 '지혜'가 어떻게 우리들 생활의 각 부분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의 교훈과 경계, 대조와 비유, 유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를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기원과 가르침, 그리고 가치 등이 자세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혜'가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지혜의 성취자이십니다.

잠언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잠언을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일정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순서상으로 아래와 같이 대략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목적(1:1-7)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1:8-9:18)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편집(10:1-22:16)

지혜자의 잠언: 첫 번째 편집(22:17-24:22)

두 번째 편집(24:23-34)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25:1-29:27)

아굴의 잠언(30:1-33)

르무엘 왕의 잠언(31:1-9)

맺음말: 이상적인 아내(31:10-31)

제 1 과

잠언(1)

자녀 교육

찬 송 / 234장

읽을 말씀 / 잠언 1-9장

공부할 말씀 / 잠언 1:7-19

먼저 읽기

40대 이상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개는 '자녀 교육' 이라고 대답합니다. 특별히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생각처럼 안되네요, 자식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아서요, ...'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9절은 자녀 교육의 비결에 대하여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어야 말이지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고 솔직하게 순종하도록 가슴을 열고 다가갑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10-19절 사이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폭력에 의한 강탈보다는 꾀임의 형태를 띠는 교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 손짓하는 유혹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1) 악행으로(11, 12절) -

2) 일확천금으로(13절) -

3) 편당으로(14절) -

2.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모든 유혹의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하니까?(18, 19절)

3.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피할 것'에 대하여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추구할 것'에 대해서도 말한 바 있습니까?(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요즈음 우리의 자녀들을 자주 넘어뜨리는 유혹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부모님으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2.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는 비결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여호와와 말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에 담겨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 훈계와 권면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의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부모인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주는 삶인지를 겸손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3. 나의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2 과

잠언(2)

말

찬 송 / 395장

읽을 말씀 / 잠언 10-24장

공부할 말씀 / 잠언 15:1, 2, 4, 7, 23, 28

먼저 읽기

우리의 생활은 '말'에서 '말'로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의 움직임뿐 아니라, 마음의 모든 움직임도 말에 의해서 좌우되곤 합니다. 말 한 마디에 울고 말 한 마디에 웃습니다. 깊은 상처와 씻은 듯한 치유도 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마 5:22). 이러한 말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이기가 어려우므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약 3:2).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 한 마디로 인해 샘솟듯 하는 격려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역으로, 우리 자신이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 생활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십시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화를 가라앉히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은 분노를 일으킵니다(1절).

온량한 혀는 ()이지만, 패려한 혀는 ()합니다(4절).

* '온량하다'는 것은 치료하여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고, 패려하다는 것은 거짓으로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2. 지체로운 말, 미련한 말

지체자의 입술과 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2, 4절)

미련한 자의 혀의 특징(4절)과 역할(2절)은 무엇입니까?

3. '얼마나 아름답고'라고 찬양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23절)

4. 누군가에게 대답할 때, 의인과 악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2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잠언은 지속적으로 '말'의 영적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디가 듣는 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말 한 마디가 듣는 이의 뼈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말의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말 습관'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격려하여 세우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하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최근에 말 때문에 격려 혹은 상처를 받은 일(혹은 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3. 가정에서 남편(혹은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불친절하고 매정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가족들이 나에게 무뚝뚝하고 매정하게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비결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나누어 보십시오.

제 3 과

잠언(3)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

찬 송 / 516장

읽을 말씀 / 잠언 25-31장

공부할 말씀 / 잠언 31:10-31

먼저 읽기

오늘 본문인 31장 10-31절은 각 절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시(詩)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집중적으로 음녀를 경계하면서 간혹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내를 소개하는 반면,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훌륭한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남자들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견해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 줍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인은 어느정도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5, 16, 18, 21, 24절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녀의 내면과 그에 따른 정돈된 태도는 모든 아내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성품과 자세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무엇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10, 14절)
2.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과 자식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11, 28-29절)
3. 현숙한 여인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남편에 대하여(12절) -

맡은 일에 대하여(13-19절) -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20절) -

집안 사람들에 대하여(21절) -

자기 자신에 대하여(22절) -
4.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하여 본문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3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나에 대한 남편과 자식들(남편인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들)의 평가는 어떠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고 나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칭찬합니까?
2. 본문 12-22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에 대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행합니다. 이 여러 부분들 중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3. 한 가정의 주부인 당신을 움직이는 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제 4 과

성탄절

아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찬 송 / 116장

읽을 말씀 / 마태복음 2장

공부할 말씀 / 마태복음 2:9-11

먼저 읽기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몇 주 전부터 이미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문화가 온 세상을 덮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몇 가지 성탄절 장식과 선물들로 성탄의 의미를 느껴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2천년 전 성탄의 밤은 이렇게 온 세상 가득 들뜬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장식도 화려한 선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낮선 땅에서 온 사람들이 가져온 몇 가지 선물만이 성탄의 기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앞 부분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신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박사들은 어디에서부터 '그 별'을 보았나요?(9절)
2. 그 별은 어디에서 멈추었나요?(9절)
3. 동방박사들은 멈추어선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10절)
4. 그 별이 멈추어선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본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본문의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마 2:1) 왔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지역에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여 있었고, 이들을 통해 그곳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찾아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온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생명의 구원이 온 열방에 미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믿음을 소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배에 합당한 준비와 헌신이 되어 있습니까?

2.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바친 것은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 예언(시 72:10, 사 60:6)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모두 매우 값비싼 물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을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2:14). 고금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세 예물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물건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준비된 예수님의 탄생을 맞았습니다. 나는 성탄절을 어떤 준비로 맞았습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 구역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 과

사죄의 확신

찬 송 / 193장
암송할 말씀 / 요일 1:9

목 상

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2.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죄의 확신에 대한 나의 점검

3.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사죄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기쁨이 있습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2)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찬양이 나오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3)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평안을 누립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4)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그 문제로 또 다시 기도합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5)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6)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7)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후에 감사한 마음이 됩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

4. 당신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5. 자백과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

7.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미쁘신 분입니까?
(참고 '미쁘다' 는 말은 '믿음직하다' 라는 말입니다.)
8.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의로우신 분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9.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1.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케 해 주신 결과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 용

12. 최근에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특히 죄 용서함 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떠한지 감정이나, 생각 혹은 행동에서 달라진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